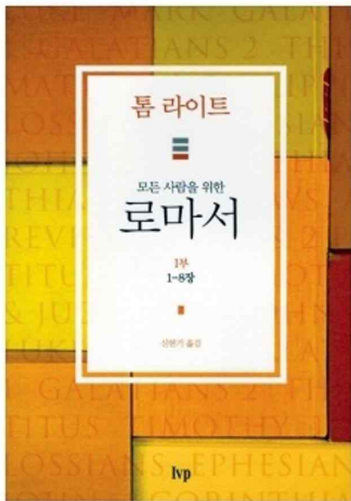


톰 라이트(N.T. Wright)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 II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영국 성공회 더럼(Durham)지역 주교였고, 작년 9월에 성 앤드류대학교(St. Andrew University)신약교수로 자리를 옮긴 톰 라이트(N.T. Wright, 1948-)는 금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로 불리어진다.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그의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들의 부활』,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등은 한결 그를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로마서는 기독교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바르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서문에서 “이 서신은 실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여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성경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로마서 주석을 쓰고 싶은 충동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이트는 2004년부터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들려주기 위해 그 자신의 새로운 원문번역과 해석을 담은 《에브리원, Every One 주석시리즈》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에 의해 로마서와 마태복음서 부분이 작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라이트의 시리즈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 II』가 가장 먼저 번역 출판 된 것은 《에브리원 주석시리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라이트 로마서이해는 물론 그가 평생을 걸쳐 강조하려는 중요한 신학적 이젠더가 들어 있다.

우리가 라이트의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The New Interpreter's Bible 주석시리즈(2003)에 실린 그의 전문적인 로마서주석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의 전문적인 로마서주석의 축소판이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보다 전문적인 로마서연구가들이나 목회자를 염두에 두고 보다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자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전개되고 있고, 매 문단의 주석마다 일종의 Q&A해설서처럼 적절한 예화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에 대한 라이트의 보다 전문적인 주석을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003년도 주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약간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어도 그의 핵심적인 신학적 아젠다는 물론, 그의 로마서 주석이 왜 우리 시대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주석의 틀을 탈피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석들은 성경의 각 구절, 각 문단마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라이트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서를 하나의 큰 내러티브로 보고, 이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내러티브를 발견한다. 말하자면 로마서라는 하나의 큰 숲과, 그리고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무들을 본다. 따라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먼저 나무가 어울려 구성하고 있는 숲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이트가 발견한 숲은 무엇인가? 그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숲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이다. 이 위대한 구원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이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되는 나무, 곧 모든 나무중의 나무요, 모든 나무를 대변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를 대변한다. 그리고 복음, 구원, 믿음, 하나님의 의, 칭의, 순종, 성화, 예배, 헌신, 이웃사랑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 고리들로 제시된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바르트,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등 수 많은 로마서 주석가들은 가능한 한 로마서를 개인 구원론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들도 로마서로부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를 발견하였지만, 구원역사는 개인구원의 외연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서로부터 그들이 찾은 중심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와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개인구원론적-수직적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3-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교리를, 6-8장에서는 순종과 성화 및 영화교리를, 9-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이신칭의교리를, 그리고 12-15장에서는 신자의 실천 및 윤리를 발견하였다.

라이트는 전통적인 개인구원론 중심의 수직적인 로마서 이해 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론 중심의 수평적 로마서 이해가 로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로 본다. 라이트에게 있어서 로마서의 중심적인 질문은 인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이다. 물론 라이트가 로마서로부터 개인 구원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론은 교회론에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라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 하실 때 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역사를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와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죄로 오염되었고, 죽음 아래 떨어졌다. 하나님은 인류와 피조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인류와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출애굽사건을 마련하셨고, 모세를 통해 토오리(율법)를 주셨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제 2의 출애굽사건을 이루셨다. 하지만 아담처럼 이스라엘민족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역사의 수행자가 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상태에서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이스라엘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곧 그의 언약적 신실성을 나타내셨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믿음은 의와 구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법적인 그리고 종말론적 선언이다.

이처럼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는 전통적인 로마서 해석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보여준다. 구절 중심에서 내러티브중심으로 접근하고, 개인구원론적-수직적해석에서 교회론적-수평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해 로마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방인과 그리고 중요한 어휘들인 복음, 구원, 믿음, 의, 칭의 등이 새롭게 해석된다. 로마서에 대한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이들은 라이트의 시도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가 로마서의 본래 메시지를 이탈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라이트의 시도를 표준화하여 전통적인 시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는 로마서 그 자체의 역사적 무대장치들 통해 시험되고 있는 웅대한 로마서 드라마를 보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에 매료되어 전통적인 시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전통적인 시각에 집착하여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글 최갑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